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춤·연극·만화 '끼' 있는 사람 모여라

목동청소년회관 문화학교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학교'가 개설된다.

목동청소년 수련관은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수련관내 문화의 집에서 '1318 문화예술 전문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취미의 차이를 넘어 청소년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교수진들을 종합예술학교 학생 및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화관 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학교는 △창작무용 △연극만화 △만화그리기 △판소리 △사물놀이 등 9개 강좌로 나뉘어진다. 각 반당 20명 내외이며, 참가신청은 22일 오전 9시 목동 청소년 수련관 1층 극장에서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2646-681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멜로디에 불심 담았어요”

10집 테이프 낸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정유타씨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묵묵히 새싹불자 포교에 매진해 온 이들이 있다. 어린이 찬불가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보급해 온 '좋은 벗 풍경소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6월 10집 테이프를 발매한 '좋은 벗 풍경소리'는 95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쾌한 동요로 바꿔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며 신심을 기를 수 있는 음성 공양을 펼쳐왔다. 그동안 발표된 곡은 무려 160곡을 헤아릴 정도다. 또 음반 불사에 참여한 음악가도 현대 찬불 동요 제작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운문스님을 비롯 덕신님, 이종만, 유익상, 정유타씨 등 40여명이 넘는다.



이종만 씨



정유타 씨

95년 1집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찬불 동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외면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엿하게 교계의 어린이·청소년 수련회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이종만 씨가 작곡한 '절에 갔었네' '육환장' '내가 다니던 시골길' 등은 어린이들에게 애창 동요로 자리를 잡았다. 찬불 동요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알려지기 까지는 '좋은 벗...'을 이끌어온 찬불동요 작곡가 이종만 씨(42)와 역시 함께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정유타(27) 씨의 공이 컸다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95년 12월 1일 찬불가 제작을 통한 어린이 포교를 목적으로 '기회 숲'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좋은 벗...'은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견지에서 출발한 사무실도 한 위치인 마포에 자리잡기까지 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주소를 바꿨다. 또 7백만원이나 드는 음반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종만 씨장은 생계도 뒤로 한채 동생서주



풍경소리가 최근 출시한 찬불동요 10집.

어 오는 등 포교의 사각지대에서 찬불동요를 대중화하는데 한 몫을 토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테크노 음악 등에 밀려져 있는 신세대 새싹 불자들의 기호와 유행에 뒤진다는 아쉬움도 있다. 10집 음반의 출시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좋은 벗...'의 이종

어려운 살림속 7년간 160곡 창작 찬불동요로 새싹불자 포교 한 뒤 종단 후원 필요...산사음악회 계획

내신신 3백명의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음반 작업은 아마 벌써 중단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찬불 동요를 적극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좋은 벗..."은 음반 작업 이외에도 약보집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97년부터는 회원들의 소식과 행사 계획을 담은 소식지도 함께 만들

만 실장과 정유타씨는 이날 안으로 교계 어린이 및 청소년 관계자들을 초청한 '특별 좌담회'를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10집 발매 기념으로 올 가을에 산사 음악회를 기획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내놓은 음반 가운데서 인기곡들만을 모은 '베스트 음반'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조계사 학생회 여름캠프

조계사 중고등학교 학생회는 27일~30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책박물관에서 '청소년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법홍사 참배 △풍경 환경정리 봉사 △민속놀이 △산행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734-8179

방학중 자원봉사자 모집

정교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원봉사를 할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

원봉사자들은 △문화재 보호활동 △한글교정 △농촌 일손돕기 △독거노인 보조 △교통실태조사 등을 펼치게 된다. 일정기간의 봉사가 끝나면 특별활동 이수증도 발급받게 된다. (042)488-0732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열어

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에서 '고궁 청소년문화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문화학교에서는 궁궐

의 연혁 및 역사, 전통건축과 조경, 궁중유물의 이해 등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강의한다. 필요일은 창경궁, 화요일은 창덕궁, 수요일은 덕수궁, 목요일은 경복궁, 금요일은 종묘 순으로 진행된다.

백두대간 국토순례 행진

진각종 통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백두대간을 따라서'를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안동 하회마을을 출발해 영주, 풍기, 단양, 제천을 거쳐 흥천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된다.

사찰 편역을 찾아서

⑬ 송하의 직지사·마곡사 편역



직지사 사찰편역



마곡사 사찰편역

송하 조운형(松下 曹允亨/1725~1799)은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의 스승인 백하 운순(白下 尹淳)의 사위이다. 또 시, 서, 화의 삼절(三絶)로 불리는 자하 신위(紫霞 申緯)의 장인으로 첩파(帖派)의 맥을 이은 조선 후기 명필이다. 그는 본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글씨로 1766년에야 벼슬길에 올랐는데 임금의 지우를 입어 예조정랑, 책례도감상례, 안악군수, 성주목사, 호조참의, 공조참판, 지문녕

황악산 직지사 여유있고 부드럽게 쓴 해서 마곡사 심검당 활시위 당기듯 활달한 필체

부사 등을 지냈다. 송하는 어려서 원교에게 글씨를 배웠으며 각 체의 글씨에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체(時體)를 본받아 획법이 굳세고 예스러운 해서와 원교를 본받은 초서를 특히 잘 썼으며 팔분(八分)에도 장기가 있었다고 한다. 글씨로 벼슬을 할만큼 당대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송하는 당시 공판의 금석과 편역을 도맡아 썼다고 하는데 사찰 편역으로는 공주 마곡사 <심검당>, 김천 직지사 <황악산직지사> 편역 등이 남아 있다. 김천 직지사 일주문 앞쪽에 걸린 <황악산직지사> 편역은 가로 (楷行)이다. 공주 마곡사 <심검당> 편역은 가로 두 개의 폭관을 이어 붙이고 마름모꼴의 도형으로 단정된 변주를 했으며, 액관 좌측 아래에 '송하(松下)'라는 관자가 있다. 편역의 글씨를 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황악산 직지사> 편역과 같은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글씨가 성남 봉국사에도 번각되어 걸려 있다. 편역의 글씨는 획법이 활시위를 당기는 듯 강건(強健)하며 활달한 운필(運筆)의 해행(楷行)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세계 50국 청소년 경주서 불교체험

9월 25일부터 청년문화캠프 세계 50여개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주에 모여 캠프를 열고 불국사, 석굴암 등 한국불교문화재를 둘러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9월 25일부터 5박 6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청년 문화 캠프'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110명의 국내외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사찰 역사조사 △불상과 탑 등 불교문화재 연구 △불상의 종류와 형태 분류 △민속마을 탐방 등 다수의 불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김주일 기자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룡(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 대장 지하(地下) 대장 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줄 것이며 소원성취·안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꿈의 계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오던 어느날 밤 꿈속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대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심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고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 육기(氣) 방 사용 체험사례 ◆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소식했던 식구가 연락이왔다.
- 말쑥한 피우던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되었다.
- 가정에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사용지 ◆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의장등록·상표등록 (특허출원)

◆ 상담 전 회 ◆ 051) 865-9933 051) 861-1010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생각지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 ◆